

2026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촌진흥청 소관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농촌진흥청 소관]

I. 예산안 개요	1
1. 총 괄	1
가. 총수입·총지출	1
나. 세입·세출예산안	3
2. 20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부사업 주요 변동내역	5
가. 2026년 신규사업	5
나. 2025년 종료사업	7
다. 주요 증액사업	8
3. 연구개발(R&D) 사업규모	10
4. 20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주요 특징	12
II. 예산안 총괄	15
1. 총수입 관련	15
2. 총지출 관련	15
III. 회계별 검토	20
1. 일반회계	20
가. 개 요	20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3
1)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3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 (1136-300):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운영 실적 개선 필요 -----	31
3)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사업: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미흡한 관리·감독 개선 필요 -----	35
4) 현장맞춤형 발농업 기계 고도화 사업: 예산 증액에 걸맞은 성과 제고 필요 -----	41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50
가. 개 요 -----	50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52
1) 농작업재해예방(보조) (2232-300): 농기계 사고예방 관련 예산 편성 검토 필요 -----	52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9
가. 개 요 -----	59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61
1) 농촌자원소득화지원: 치유농업사 제도의 미흡한 운영 개선 필요 ----	61
2)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지역자율) : 이월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 점검 및 실집행을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75

[농촌진흥청 소관]

I. 예산안 개요

1. 총괄

가. 총수입·총지출

□ 농촌진흥청 소관 '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 농촌진흥청 소관 '26년도 예산안 총수입은¹⁾ 141억원으로 '25년 예산(146억원) 대비 5억원(3.7%) 감소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6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억원임.

이를 성질별로 보면, 재산수입 16억원, 경상이전수입 90억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4억원, 수입대체경비수입 0.2억원, 관유물매각대 0.5억원으로 구성됨.

1) 총수입은 총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반회계의 총계, 특별회계의 총계, 기금(금융성기금과 재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를 모두 더한 뒤, 회계 간 내부거래수입,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각 회계와 기금의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함. 여기서 내부거래수입이란, 어느 회계나 기금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으로, 차입이나 예수와 같이 빌리는 경우와 전입과 같이 무상으로 얻는 경우가 있는데,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총수입 산출 시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게 됨. 보전수입은 어느 회계나 기금 입장에서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민간으로부터 빌리거나(국채발행 또는 차입)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여유자금 회수)하는 경우를 의미함.

【 농촌진흥청 소관 2026년도 총수입 】

(단위 : 백만원, %)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 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1,268	12,023	12,023	11,635	△388	△3.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95	1,118	1,118	746	△372	△3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494	1,516	1,516	1,737	221	14.6
합 계	14,057	14,657	14,657	14,118	△539	△3.7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은²⁾ 1조 1,325억원으로 '25년 예산(1조 615억원) 대비 710억원(6.7%)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952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5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88억원임.

【 농촌진흥청 소관 2026년도 총지출 】

(단위 : 백만원, %)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 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71,572	940,866	940,866	995,220	54,354	5.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452	6,849	6,849	8,446	1,597	2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5,223	113,812	113,812	128,804	14,992	13.2
합 계	1,064,247	1,061,527	1,061,527	1,132,470	70,943	6.7

※ 주: 총지출 기준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2)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뿐 아니라 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채발행이나 차입 등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함(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나. 세입·세출예산안

- 농촌진흥청 소관 '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 농촌진흥청 소관 '26년도 세입예산안은 141억원으로 '25년 예산(146억원) 대비 5억원(3.7%) 감소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6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억원임.
-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이 5억원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수입이 9억원 감소하였음.

【 농촌진흥청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 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1,268	12,023	12,023	11,635	△388	△3.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95	1,118	1,118	746	△372	△3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494	1,516	1,516	1,737	221	14.6
합 계	14,057	14,657	14,657	14,118	△539	△3.7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농촌진흥청 소관 '26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1,325억원으로 '25년 예산(1조 615억원) 대비 710억원(6.7%)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952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5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88억원임.

□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25년 예산 대비 인건비는 22억원(1.3%)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7억원(2.6%), 사업비는 681억원(7.9%) 증액되었음.

【 농촌진흥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 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71,572	940,866	940,866	995,220	54,354	5.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452	6,849	6,849	8,446	1,597	2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5,223	113,812	113,812	128,804	14,992	13.2
합 계	1,064,247	1,061,527	1,061,527	1,132,470	70,943	6.7

※ 주: 총지출 기준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2. 20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부사업 주요 변동내역

가. 2026년 신규사업

- 농촌진흥청의 '26년도 신규사업은 국가농업환경종합관리기술개발(R&D) 등 일반회계 총 12개 사업 491억원 규모임.

【 농촌진흥청 소관 2026년도 신규사업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2026 예산안	사 업 내 용
합 계		49,145	
▪ 국가농업환경종합관리기술 개발(R&D)	일반	4,025	▪ 농업 자원·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국가·지역단위 건전성·지속 가능성 평가기술 개발
▪ 기후변화대응생명공학작물 활용기술개발(R&D)	일반	4,200	▪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성 생명공학작물의 안전성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종자시장 진출 지원 및 국내 작물재배환경 안전관리
▪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제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R&D)	일반	2,000	▪ 국제협력 네트워크 활용 주요 작물의 국경 이동성 해충 예찰 기반 고도화 및 확산방지 기술 개발로 국내 유입 전 관리·대응 기술 확보
▪ 가축생산비절감정밀사양최적 기술개발및고도화(R&D)	일반	3,000	▪ 가축 생산비 절감 및 원료사료 수입 대체를 위한 정밀영양 기반 축종별 사양관리 기술 개발 고도화 및 영양학적 가치평가를 통한 사료 소재 발굴
▪ AI기반작물모니터링및진단플랫폼개발(R&D)	일반	7,800	▪ 빅데이터·AI 모델 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 플랫폼 개발로 지능형 영농관리 서비스 실현을 통한 농업생산 안정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
▪ AI기반생체·정서반응형농업 활동서비스플랫폼개발(R&D)	일반	3,000	▪ AI·AX 기반 생체신호 분석과 디지털 헬스 융합 기술을 활용한 치유농업 플랫폼 및 실시간 건강효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데이터기반농업관측을위한위성영상활용기술개발(R&D)	일반	1,770	▪ 위성영상을 활용한 작황 모니터링, 농경지 변화 감시, 재해 대응, 해외 작황 분석을 포함한 핵심 기술 개발
▪ 지능형농업로봇핵심기반기술 개발(R&D)	일반	2,950	▪ 지능형 농업로봇의 핵심기반 기술(시각 지능화, 센서 융합기술 등) 확보 및 표준 개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 계	2026 예산안	사 업 내 용
▪ 대체단백특화시장맞춤형원료 화(R&D)	일반	7,800	▪ 국산 생물자원(식물, 곤충 등) 기반 대체 단백질 소재의 차별화된 고부가 원료 개발과 특화시장 창출을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
▪ 특용작물유래천연활성바이오 소재생산및활용기술개발(R&D)	일반	7,500	▪ 농생명자원의 신가치 창출과 그린바 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밀농업 및 세포배양·대사경로를 활용한 유용물질 최적생산기술 개발
▪ 농업농촌국민체감AX전환기 술개발(R&D)	일반	2,100	▪ 빈집·유휴시설 활용 등 농촌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형 인공지능 핵심 기술 개발
▪ 농작업안전관리기술및웨어러 블편이장비개발(R&D)	일반	3,000	▪ 농작업 보조 능동형 웨어러블 장치, 첨단기술 활용 농작업 개인보호·안전편 이 장비 등 농업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 전편이장비 개발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나. 2025년 종료사업

□ '25년 농촌진흥청 예산 중 종료 예정인 사업은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 구축(R&D) 등 총 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195억원임.

【 농촌진흥청 소관 2025년도 종료사업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5 예산	사 업 내 용
합 계	19,495	
▪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 구축(R&D)	5,350	▪ 위성영상 수집·활용체계 개발을 위한 위성영상활용 인프라 구축(장비)
▪ 2025축산현안대응기술고도화(R&D)	2,549	▪ 가축 생산 효율성 증진을 소비자 맞춤형 축산물 생산 기술 개발
▪ 국가농경지환경자원관리기술개발(R&D)	5,669	▪ 공익직불제 지원 및 공익기능 확산 기술개발 및 농업 환경자원 평가 및 안전 관리기술 개발
▪ 차세대중형위성개발(농림위성)(R&D)(농진청)	2,800	▪ 차세대중형위성개발(농림위성)
▪ 북부원예출장소구축(R&D ,책임 운영)	2,527	▪ 원예작물의 기후변화(이상기상) 및 북부지역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연구 수행을 위한 북부원예출장소 구축
▪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R&D)	600	▪ 농촌진흥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이전받는 R&D 성과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 및 성과확산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다. 주요 증액사업

□ 농촌진흥청의 '26년도 주요 증액사업은 밭농업기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고효율 농작업 복합작업형 농기계 개발과 밭농업기계의 다품목 이용을 위한 범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현장맞춤형밭농업기계고도화(R&D) 등 18개 사업으로, 총 예산안 규모는 1,547억원임.

【 주요 증액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비고
합 계	98,843	154,746	55,903	56.6	
▪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기 반구축	630	1,223	593	94.1	
▪ 중점관리병해충선제대응및피 해경감기술실용화(R&D)	7,900	10,533	2,633	33.3	
▪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실증센 터기반구축	3,610	7,084	3,474	96.2	
▪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3,291	12,686	9,395	285.5	
▪ 현장맞춤형밭농업기계고도화 (R&D)	4,440	12,403	7,963	179.3	
▪ 밀자급률도약생산소비연계핵 심기술개발(R&D)	4,400	5,867	1,467	33.3	
▪ 원예작물수급안정을위한이상 기상대응기술고도화(R&D)	6,000	8,000	2,000	33.3	
▪ 농업기초기반전문기술인재양 성(R&D)	2,400	3,200	800	33.3	
▪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 (R&D)	3,750	5,000	1,250	33.3	
▪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 술기반구축(R&D)	4,000	5,333	1,333	33.3	
▪ 농산부산물Eco순환기술개발 (R&D)	5,000	6,667	1,667	33.3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비고
▪ 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 (R&D)	40,254	53,138	12,884	32.0	
▪ 농작업재해예방(보조)	3,020	5,070	2,050	67.9	
▪ 지역특화작목연구기반고도화 (R&D, 보조, 지역자율)	1,448	5,128	3,680	254.1	
▪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R&D, 보조, 지역지원)	6,316	9,624	3,308	52.4	
▪ 지역특화작목연구기반고도화 (R&D, 제주, 지역자율)	280	600	320	114.3	
▪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R&D, 제주, 지역지원)	204	590	386	189.2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보조, 제주)	1,900	2,600	700	36.8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주. 주요 증액사업 : '25년 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증액된 세부사업

3. 연구개발(R&D) 사업규모

□ '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은 1조 1,325억원으로 '25년도 1조 615억원 대비 710억원(6.7%) 증가하였고, 순수연구개발 예산은 6,238억원으로 농촌진흥청 전체 예산(1조 1,325억원)의 55.1% 비중으로 '25년도 5,672억원 대비 566억원(10.0%) 증가하였음.

【 20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예산안 】

(단위 : 억원)

구 분	'25예산		'26예산안		전년대비	
	(A)	비중(%)	(B)	비중(%)	(B-A)	%
합계	10,615	100.0	11,325	100.0	710	6.7
□ 사 업 비	8,602	81.0	9,283	82.0	681	7.9
○ 순수연구개발	5,672	53.4	6,238	55.1	566	10.0
○ 기술보급	2,186	20.6	2,192	19.4	6	0.3
○ 농업기술진흥원	211	2.0	191	1.7	△20	△9.5
○ 정 보 화	365	3.4	355	3.1	△10	△2.7
○ 기타사업	168	1.6	307	2.7	139	82.7
□ 기본경비	266	2.5	273	2.4	7	2.6
□ 인 건 비	1,747	16.5	1,769	15.6	22	1.3

※ 자료: 농촌진흥청 세출

※ 주. 순수연구개발 예산에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본경비, 인건비 등이 제외된 수치임.

□ 최근 5년간 국가전체 R&D예산은 연평균 4.3%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림수산분야 R&D예산은 연평균 1.4%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의 R&D예산은 연평균 증감율 △2.4%로 국가전체 R&D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4.3% 대비 낮은 수준임.

【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예산 비중 】

(단위 : 억원, %)

구 분	국가전체 R&D(A)	농림수산분야 R&D(B)	농진청 R&D(C)	농림/국가 (B/A)	농진/국가 (C/A)	농진/농림 (C/B)
'22년	297,755	15,125	8,533	5.1	2.9	56.4
'23년	310,574	15,542	9,022	5.0	2.9	58.0
'24년	265,369	12,741	7,260	4.8	2.7	57.0
'25년	295,968	13,037	7,147	4.4	2.4	54.8
'26년 안	352,949	14,287	7,756	4.0	2.2	54.3
연평균 증감율	4.3	△1.4	△2.4	-	-	-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R&D예산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포함된 수치임.

※ 농림수산분야 R&D예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R&D예산을 모두 합한 수치임.

※ '25년까지는 확정예산이고, '26년은 정부제출안임.

4. 20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주요 특징

- 농촌진흥청은 '26년도 예산안이 ① AI·로봇 등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농업 육성, ②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지원, ③ 밭농업기계화 등 농업 현장 현안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세입예산안은 141억원으로, '25년 예산 146억원 대비 5억원 감액(△ 3.7%)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안은 첫째, '26년도 총지출 규모가 1조 1,325억원으로, '26년도 정부세출 예산안 총지출 규모인 728조원 대비 0.16% 수준이며, '22년부터 '23년까지 0.19%~0.20%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4년에 0.17%로 감소한 이래 '25년부터 '26년 예산안까지 0.16%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최근 5년간 정부 총지출 대비 농촌진흥청 총지출 비중 】

(단위 : 억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정부 총지출(a)	6,076,633	6,387,277	6,566,182	6,733,016	7,280,000
농촌진흥청 총지출(b)	11,893	12,547	10,974	10,615	11,325
비중(b/a)	0.19	0.20	0.17	0.16	0.16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둘째, '26년 예산안 중 기술보급 예산³⁾은 '25년 대비 6억원(0.3%) 증액된 2,192억원으로, 이는 농촌진흥청의 세출예산안 1조 1,325억원 대비 19.4% 수준이며, 연평균 증감율은 0.4%로 R&D예산의 연평균 증감율 △2.4% 대비 높은 수준임.

【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기술보급 예산 비중 】

(단위 : 억원, %)

연도별	세출예산 (총계)(A)	R&D 예산(B)	비중 (B/A)	기술보급 관련 예산(C)	비중 (C/A)	R&D 대비 기술보급 관련 비중 (C/B)
'22년	11,893	8,533	71.7	2,156	18.1	25.3
'23년	12,547	9,022	71.9	2,230	17.8	24.7
'24년	10,974	7,260	66.2	2,359	21.5	32.5
'25년	10,615	7,147	67.3	2,186	20.6	30.6
'26년안	11,325	7,756	68.5	2,192	19.4	28.3
연평균 증감율	△1.2	△2.4	-	0.4	-	-

※ 자료: 농촌진흥청 세출

※ R&D예산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포함된 수치임.

□ 기술보급 사업 예산안 2,192억원 중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농작업재해예방(보조) 사업이 '25년 대비 21억원(67.9%) 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식품 소비 정보 및 농업 생육 데이터 등 데이터 수집과 분석자료를 활용한 농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이터기반농업활성화 사업이 '25년 대비 14억원(17.2%) 증액 편성되었으나,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 사업은 3억원(△4.5%), 과학영농현장

3) 기술보급 사업 : 새로운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실용화를 촉진하고, 농가 기술수준과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기술지원(보조) 사업은 20억원(△26.1%),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보조, 지역지원) 사업이 14억원(△37.4%) 감액되어, 기술보급 전체 예산은 '25년에 비하여 총 6억원(0.3%)이 증액되었고, 연구개발 사업예산 증액률(10.0%)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한 우수 연구결과가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 사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2026년도 기술보급 예산안 주요 증감액 현황 】

(단위 : 억원, %)

사 업 명	'25예산 (A)	'26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 기술보급 예산 총액	2,186	2,192	6	0.3
- 농업기술협력지원(보조)	174	171	△3	△2.1
-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	69	66	△3	△4.5
-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	78	58	△20	△26.1
-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보조)	547	527	△20	△3.7
- 농촌통계조사분석(보조)	38	44	6	16.7
- 데이터기반농업활성화	79	93	14	17.2
- 농업과학기술교육	33	35	2	7.5
- 농작업재해예방(보조)	30	51	21	67.9
-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19	19	-	-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지역자율)	585	607	22	3.8
-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지역자율)	30	36	6	19.4
- 신기술보급사업(보조, 지역지원)	389	388	△1	△0.1
-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보조, 지역지원)	37	23	△14	△37.4
- 농촌자원소득화지원(보조, 지역지원)	22	17	△5	△22.9
- 농산업교육훈련지원(보조, 지역지원)	32	29	△3	△9.4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제주)	19	26	7	36.8
-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제주)	0.7	0.8	0.1	13.6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세종)	4	1	△3	△68.8
-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세종)	0.15	0.17	0.02	13.3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II. 예산안 총괄

1. 총수입 관련

- 농촌진흥청의 '26년 예산안 총수입은 141억 1,800만원이며, '22년과 '24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예산에 비하여 실제 수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농촌진흥청 예산안 총수입 대비 실제 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7월 기준)	'26년(안)
예산안 총수입	17,541	15,943	15,286	14,657	14,118
실제 수입(결산)	21,744	10,523	15,651	10,007	-

※ 자료 : 농촌진흥청 제출

2. 총지출 관련

- 2026년도 정부 총지출(안)⁴⁾은 728조원으로 2025년도에 비하여 8.1% 증가하였으며, 2026년도 농촌진흥청의 총지출 예산안(세출 예산안과 동일)은 1조 1,325억원으로, 2025년도 예산에 비해 6.7% 증가하였음.

정부 총지출 중 2026년도 농촌진흥청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6년도 예산 기준 0.16%로, 25년도 기준 0.16%와 동일함.

4)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뿐 아니라 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채발행이나 차입 등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함(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정부 총지출 중 농촌진흥청 비율】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5년 총지출(A)	2026년 총지출(B)	증감	
			(B-A)	%
정부 총지출	673,302	728,006	54,704	8.1
농촌진흥청	1,062	1,133	71	6.7
비율	0.16	0.16	-	-

※ 자료 : 농촌진흥청 제출

- 정부 총지출 중 농촌진흥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까지 0.2%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에는 0.17%, 2025년부터 0.16%로 감소하였음.

【정부 총지출 중 농촌진흥청 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비중	0.20	0.20	0.19	0.20	0.17	0.16	0.16

※ 자료 : 농촌진흥청 제출

- 2026년도 예산안의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69조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 일반·지방행정(121.1조원), 교육(99.8조원)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R&D(19.3%), 산업·중소기업·에너지(14.7%), 일반·지방행정(9.4%) 등의 순으로 높고, 전년 대비 총지출 규모가 감소한 분야는 외교·통일(Δ 9.1%) 분야임.

농촌진흥청이 포함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2026년 예산안은 27.9조원으로 2025년에 비하여 7.7% 증가하였음.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단위 : 조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2025년 대비	
			증감액 (B-A)	증감률 (B-A/A)
1. 보건·복지·고용	248.7	269.1	20.4	8.2
2. 교육	98.5	99.8	1.4	1.4
3. 문화·체육·관광	8.8	9.6	0.8	8.8
4. 환경	13.0	14.0	1.0	7.7
5. R&D	29.6	35.3	5.7	19.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	32.3	4.1	14.7
7. SOC	25.4	27.5	2.0	7.9
8. 농림·수산·식품	25.9	27.9	2.0	7.7
9. 국방	61.2	66.3	5.0	8.2
10. 외교·통일	7.7	7.0	Δ 0.7	Δ 9.1
11. 공공질서·안전	25.0	27.2	2.2	8.8
12. 일반·지방행정	110.7	121.1	10.4	9.4

※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12대 분야의 지난 5년간 증가율을 보면, 일반·지방행정(7.2%), 외교·통일(7.1%), 환경(7.0%)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향후 5년간 증가율은 R&D(8.8%), 산업·중기·에너지(6.9%)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한편,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난 5년간 증가율은 3.8%로 12대 분야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향후 5년간 증가율은 4.2%임.

【12대 분야 자원배분 변화】

(단위 : 조원, %)

구분	2020 본예산	2021 본예산	2022 본예산	2023 본예산	2024 본예산	지난 5년간 증가율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2027 계획	2028 계획	2029 계획	'25~'29 5년간 증가율
1. 보건·복지 · 고용	180.5	199.7	217.7	226.0	237.6	6.7	248.7	269.1	285.5	300.6	313.5	6.0
2. 교육	72.6	71.2	84.2	96.3	95.2	6.6	98.5	99.8	106.0	110.5	115.1	4.0
3. 문화·체육 · 관광	8.0	8.5	9.1	8.6	8.7	2.0	8.8	9.6	10.0	10.5	10.8	5.2
4. 환경	9.3	10.6	11.9	12.2	12.5	7.0	13.0	14.0	14.5	14.9	15.3	4.2
5. R&D	24.1	27.4	29.8	31.1	26.5	4.7	29.6	35.3	37.3	39.4	41.4	8.8
6. 산업·중기 · 에너지	37.2	28.6	31.3	26.0	28.0	△4.4	28.2	32.3	34.0	35.6	36.8	6.9
7. SOC	23.2	26.5	28.0	25.0	26.4	2.2	25.4	27.5	28.6	29.7	30.1	4.3
8. 농림·수산 · 식품	21.5	22.7	23.7	24.4	25.4	3.8	25.9	27.9	28.9	29.9	30.5	4.2
9. 국방	50.2	52.8	54.6	57.0	59.4	4.0	61.2	66.3	69.7	73.2	76.2	5.6
10. 외교·통일	5.5	5.7	6.0	6.4	7.5	7.1	7.7	7.0	7.3	7.5	7.7	0.1
11. 공공질서 · 안전	20.8	22.3	22.3	22.9	24.4	3.8	25.0	27.2	28.0	28.8	29.5	4.2
12. 일반·지방 행정	79.0	84.7	98.1	112.2	110.5	7.2	110.7	121.1	126.7	135.1	141.9	6.4

※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026년도 정부 전체 R&D 예산은 35조 2,949억원으로 2025년에 비하여 19.3% 증가하였는데, 2026년도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7,756억원으로 8.5% 증가하여 농촌진흥청 R&D 예산 증가율이 정부 전체 R&D 예산 증가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 전체 및 농촌진흥청 R&D 예산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정부 전체 R&D	295,787	352,949	57,162	19.3
농촌진흥청 R&D	7,147	7,756	609	8.5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20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중 연구개발출연금은 1,745억원으로 2025년도 예산에 비하여 387억원 증가(28.5%)하였음.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출연금 예산안】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2025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
농촌진흥청 예산(A)	10,615	11,325	710	6.7
연구개발 출연금 예산(B)	1,358	1,745	387	28.5
비중 (B/A*100)	12.8	15.4	-	-

※ 자료 : 농촌진흥청 제출

Ⅲ. 회계별 검토

1. 일반회계

가. 개 요

□ '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16억원으로 '25년도(120억원) 대비 3.2%(4억원) 감소하였음.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12,023	11,635	△388	△3.2
○ 관유물대여료	76	100	24	31.6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6	1,457	451	44.8
○ 과태료	4	4	-	-
○ 변상금및위약금	119	54	△65	△54.6
○ 기타경상이전수입	7,216	6,549	△667	△9.2
○ 면허료및수수료	45	42	△3	△6.7
○ 실습수입	3,164	3,164	-	-
○ 잡수입	293	212	△81	△27.6
○ 고정자산매각대	100	53	△47	△47.0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952억 원으로, '25년도 (9,409억 원) 대비 5.8%(543억 원) 증가하였음.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R&D)이 531억 원으로 '25년(403억 원) 대비 32.0%(128억 원) 증가하였고,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사업은 127억 원으로 '25년(33억 원) 대비 285.5%(94억 원) 증가하였으며,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실증센터기반구축 사업은 71억 원으로 '25년(36억 원) 대비 96.2%(35억 원) 증가하였음.

현장맞춤형밭농업기계고도화(R&D) 사업은 124억 원으로 '25년(44억 원) 대비 179.3%(80억 원) 증가하였고, 중점관리병해충선제대응및피해경감 기술실용화(R&D) 사업은 105억 원으로 '25년(79억 원) 대비 33.3%(26억 원) 증가하였으며, 원예작물수급안정을위한이상기상대응기술고도화(R&D) 사업은 80억 원으로 '25년(60억 원) 대비 33.3%(20억 원) 증가하였음.

반면, 파속채소연구소구축(R&D) 사업은 25억 원으로 '25년(123억 원) 대비 79.7%(98억 원) 감소하였고, 농자재관리 및 평가(R&D) 사업은 97억 원으로 '25년(128억 원) 대비 23.9%(31억 원) 감소하였으며,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 사업은 58억 원으로 '25년(78억 원) 대비 26.1%(20억 원) 감소하였고,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사업은 345억 원으로 '25년(438억 원) 대비 21.4%(93억 원) 감소하였음.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9,409	9,952	543	5.8
○ 일반지출	9,409	9,952	543	5.8

※ 자료: 농촌진흥청 세출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농과계열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KOPIA 센터에 파견하여 글로벌 농업인재로 양성하려는 동 사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파견자 취업 통계에서 약 20%만이 농식품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사업의 성과 환류에 직결되는 ‘취업현황 응답’을 연수생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등 최소한의 사후관리조차도 실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은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사업은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와 국제사회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개발도상국의 농업 기술력과 자립 역량을 향상시키는 농업기술개발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93억 7,200만원(21.4%) 감액된 344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⁵⁾.

【 2026회계연도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R&D, ODA)	40,280	43,843	25,335	34,471	△9,372	△21.4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5)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1136-312)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은 개발도상국의 주요 농업연구기관 내에 KOPIA 센터를 설치하여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임.

【 2026회계연도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내용	단가	총액	비중(%)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22,416	100.0
○ 기술협력 및 시범마을 과제			10,396	46.4
(센터 운영비)	(22 센터)	(98)	(2,156)	(9.6)
(기술개발 및 농가 실증)	(28 과제)	(130)	(3,640)	(16.2)
(시범마을 및 사후관리)	(11 과제)	(418)	(4,600)	(20.5)
○ 글로벌 농업 인재양성	24 명	85	2,050	9.1
○ 협업 사업	7과제	914	6,400	28.6
○ 라이스피아사업	5과제	714	3,570	15.9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이 중 세부내역사업인 ‘글로벌 농업인재양성사업’은 KOPIA 센터에서의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국제적인 경험과 역량을 지닌 농업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만 34세 이하의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KOPIA 센터로 파견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파견 대상자는 연구원(농과계열 대학 졸업자) 및 연수생(농과계열 대학 재학생 중 관련계통 과목 6개 이상 이수한 자)으로, 파견된 인력들에게는 임금, 4대보험, 항공료, 주택임차비, 어학지원비, 복리후생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글로벌농업인재양성 사업 현황 】

목적	농과계열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에 청년인턴으로 파견하여 국제적인 경험과 역량을 겸비한 글로벌 농업인재로 양성
사업 근거	「농촌진흥법」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동법시행령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사업 내용	주재국과의 공동협력사업 지원, 농업관련 기술 습득 및 전문성 함양, KOPIA 농업분야 실습 연수훈련 프로그램 이수
지원 대상	○ 연구원 : 농과계열 대학 졸업 이상인 자(만 34세 이하) ○ 연수생 : 농과계열 대학 재학 중인 자로 농업 관련 과목 또는 관련계통 과목을 6개 이상 이수한 자(만 34세 이하)
지원 내용	인건비, 사회보험, 항공료, 해외여행자보험 등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이에 연간 16억 원에서 24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1인당으로는 연구원은 약 6,300만원, 연수생은 약 2,000만원을 각각 지원해주고 있음.

【 최근 5년간 집행예산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
직접경비	인건비	647	697	735	755	781
	맞춤형 복지비	8	8	11	11	11
	실습지원비 및 재료비	318	436	336	263	70
	사업운영경비 (국외업무여비)	165	165	165	165	39
간접경비	해외안전관리 지원서비스 및 채용용역	200	100	200	230	230
	4대보험 및 퇴직금	124	124	134	137	142
	주택임차 및 어학지원비 등 국제부담금	200	200	194	839	641
합 계		1,662	1,730	1,775	2,400	1,914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연구원 및 연수생 1인당 지원액 】

(단위 : 천원)

구분	계	인건비	4대보험 및 퇴직금	맞춤형 복지비	항공료	해외안전 지원서비스	주택 임차	어학 지원비
연구원	63,100	34,318	6,272	500	3,000	1,020	15,600	1,092
연수생	19,656	7,800	-	-		510	7,800	546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그런데, 최근 5년간 동 사업에 의해 KOPIA 파견을 마친 인력의 취업 통계를 살펴보면, 취업자 중 농식품분야 종사자 비율은 약 59% 수준에 불과하여 상당수가 사업 목적과 무관한 비(非) 농식품분야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러한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로, 취업자 중 농식품 분야 취업률은 '20년 67.6%에서 '24년 50.9%까지 급감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취업자’ 기준이 아닌, ‘전체 파견자’를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농식품분야 취업자 비율은 약 20% 수준에 그쳐 동 사업 예산을 지원받은 파견자 약 80%가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분야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동 사업 대상자 KOPIA 파견 이후 농식품분야 종사 현황 】

(단위: 명)

조사연도(명)	조사대상자 ⁶⁾		취업자 (A+B)	농식품 분야 (A)	비농식품 분야 (B)	취업자 중 농식품분야 취업률	파견자 중 농식품분야 취업률
	응답	미응답(비율)					
2020년(224)	184(82.1%)	40(17.9%)	74	50	24	67.6%	22.3%
2021년(194)	156(80.4%)	38(19.6%)	76	48	28	63.2%	24.7%
2022년(109)	78(71.6%)	31(28.4%)	48	26	22	54.2%	23.9%
2023년(101)	58(57.4%)	43(42.6%)	41	22	19	53.7%	21.8%
2024년(130)	78(60%)	52(40%)	53	27	26	50.9%	20.8%
합 계(758)	554	204	292	173	119	59.2%	22.8%

※ 자료: 농촌진흥청, 취업기관을 공개한 자에 한하여 통계 산출

이처럼 파견 인력의 약 80%가 농식품 분야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은, 국제적 역량을 지닌 ‘농업인재’를 양성하려는 당초 사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효과 또한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6) 취업률조사는 파견 당시 주로 2~4학년 재학생으로 파견 종료 2년 후 실시 함.

□ 한편, 동 사업 연수생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취업현황 조사 시 미응답 비율이 '20년 17.9%에서 '24년 40%로 급증하는 등 현재 기본적인 성과추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진흥청의 사업 성과관리 및 환류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후관리를 위한 취업현황 응답을 연수생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명백한 사업설계 오류로 보임.

이로 인해, 농식품분야 취업을 하락의 근본 원인 분석이나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불가능한 상태로, 농촌진흥청의 사업 성과관리 및 환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유사사업인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⁷⁾'은 연수생 선발 시 서약서를 통해 사후 현황조사 동의의 의무화하여 책임 있는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그동안 농촌진흥청의 사업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7)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 (추진배경) 2019년부터 국내의 우수한 건축설계 인력이 세계적인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추진 중
- (사업목적)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축설계 분야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세계적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수한 설계인력을 육성하고, 건축설계 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
- (사업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 및 제19조

□ 따라서, 농촌진흥청이 연간 16억 원에서 24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농식품분야에 취업한 인원은 지원 대상자 중 약 20%에 불과한 실정과,

동 사업의 성과 환류에 직결되는 ‘취업현황 응답’을 연수생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등 최소한의 사후관리조차도 부재하였던 측면을 고려할 때, 당초 사업 목적인 ‘KOPIA 파견 경험을 통한 국제적인 역량을 지닌 농업인재 양성’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첫째, 국토교통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연수생 선발 시 ‘사후 현황조사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의 오류를 바로 잡고 책임 있는 통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확보된 통계 기반을 토대로 농식품분야 취업률 하락의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수생 선발기준, 현지 교육 내용, 파견 기간 등 사업 전반을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임.

셋째, 파견 이후 귀국한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 워크숍, 관련분야 전문가 멘토링 및 유관기관 인턴십 연계 등 국내외 농식품분야 진로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실질적인 진로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토대로, 동 사업 연수생들의 농식품분야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당초 사업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 (1136-300):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운영 실적 개선 필요

-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운영 실적이 센터의 처리규모 대비 저조하므로, 농촌진흥청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6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처리용량에 상응하는 처리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 사업은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수지차보전 방식으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9,400만원(2.7%) 감액된 355억원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⁸⁾.

【 2026년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	38,681	36,504	36,504	35,510	△994	△2.7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8)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 (1136-300)

나) 검토의견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종자의 정선, 소독, 저장 등을 종합 처리하는 ‘종자 종합처리센터’ 운영을 통해, 우수 신품종 종자를 신속하게 증식·보급하여 농가 노동력 절감 및 편의를 증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2012년에 특수미를 대상으로 하는 중부권 종자종합처리센터⁹⁾, 2017년에 특수미·사료용 벼·맥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를 구축한 데 이어 두류·잡곡·유지작물·사료용 옥수수 등 발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가 2019년 12월에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종자종합처리센터 운영 현황 】

구분	중부권(횡성)	호남권(김제)	영남권(안동)
주요처리작물	특수미(벼)	특수미(벼), 맥류(보리) 조사료용 종자(벼, 맥류)	발작물(두류, 잡곡 등) 특수미, 맥류 일부
주요 역할	종자사업 초기운영	호남지역(전북·전남) 채종단지, 생산종자 처리 및 저장	영남지역(강원·경북) 채종단지, 생산종자 처리 및 저장
인력현황	0명	정규직 3명, 계약직 5명	정규직 2명, 계약직 6명
시설현황	폐쇄	사무실, 근로자 휴게시설, 정선라인 저장시설(상온, 저온) 곡물건조기 15대, 신축 저온창고 등	사무실, 근로자 휴게시설, 정선라인 저장시설(상온, 저온)

호남권(김제, 2017년 11월 30일 준공)	영남권(안동, 2019년 12월 8일 준공)
 ○ 처리용량: 연간 2,500톤(건조, 정선, 저장) ○ 시설장비: 미맥 정선시스템 2라인(21종 121점) ○ 처리능력: 시간당 2라인 6톤 ○ 정선작물: 특수미, 사료용벼, 맥류	 ○ 처리용량: 연간 2,000톤(건조, 정선, 저장) ○ 시설장비: 발작물 정선시스템 3라인(41종 236점) ○ 처리능력: 시간당 3라인 5톤 ○ 정선작물: 발작물, 벼, 맥류(23가동률 향상을 위해 증설)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9) 중부권 종자종합처리센터는 노후화로 폐쇄('23.3월 가동 중단, '26년까지 매각완료 예정)

□ 그런데, 종자종합처리센터별 처리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19년 12월에 준공된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의 운영 실적이 구축 당시 계획한 센터의 처리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종자종합처리센터별 처리 실적 현황 】

(단위 : 톤/년, %)

연도	구분	권역별 종자종합처리센터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합계
2023	처리용량(A)	노후화에 따른 처리중단	2,500	2,000	4,500
	처리실적(B)		3,678	1,300	4,978
	처리율(B/A*100)		147.1	65.0	110.6
2024	처리용량(A)	폐쇄 및 매각 처리 중	2,500	2,000	4,500
	처리실적(B)		3,197	1,405	4,602
	처리율(B/A*100)		127.9	70.3	102.3
2025.9 (진행중)	처리용량(A)		2,500	2,000	4,500
	처리실적(B)		2,816	908	3,724
	처리율(B/A*100)		112.6	45.4	82.8

※ 자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영남권 센터는 연간 2,000톤의 처리 규모를 갖추고 있으나, '23년 처리 실적은 1,300톤(처리율 65.0%), '24년은 1,405톤(처리율 70.3%)에 그쳤고, '25년의 경우 9월 말 기준 908톤(처리율 45.4%)의 처리 실적에 그치고 있어, '25년 처리 실적도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에, 연간 2,500톤 규모의 호남권 센터는 '23년 3,678톤(147.1%), '24년 3,197톤(127.9%)의 처리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25년 9월 말 기준 이미 2,816톤(112.6%)을 처리하여 연간 처리용량을 초과 달성하는 등 영남권 센터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농촌진흥청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영남권 센터의 경우 다품종 소량 생산의 발작물 종자 위주로 가동되어 수매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한정된 예산으로 처리율을 제고하기가 어려웠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낮은 처리율 개선을 위해 '24년에 기존 발작물 전용 시설 외에 벼·맥류 정선 시설을 추가 도입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발작물 외 타 품목으로의 처리 확대 필요성은 이미 인지되었던 것으로 보임.

- 우수 신품종 종자의 신속한 증식 및 현장 조기 보급이라는 센터 본연의 운영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남권 센터의 실적을 설립 당초 계획한 처리 규모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농촌진흥청 및 농진원은 '26년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① 기존 발작물 외 벼·맥류 정선시설 확충, ②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 위탁정선 지원 확대 등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의 운영 실적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면밀히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사업: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미흡한 관리·감독 개선 필요

- 농촌진흥청은 ①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② 각 지자체별 교육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보화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③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량적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사업의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정보화, 보조)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른 농업기술, 경영정보 등의 제공 및 농업인의 정보화·스마트 경영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농업인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00만원(1.2%) 감액된 6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¹⁰⁾.

【 2026회계연도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정보화, 보조)	652	652	652	644	△8	△1.2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10)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정보화, 보조) (2333-201)

나) 검토의견

□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사업’은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추진 및 농산물 사이버 마케팅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업인 대상 정보화 교육’ 등의 업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이하 “정보화 전문 인력”이라 한다) 1명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정보화 전문 인력이 해당 지역 농업인에 대해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농업인의 정보 활용 능력과 스마트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별 정보화 전문 인력의 '24년도 1인당 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평균 월 1회(연 12회)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2024년도 지역별 농업인 정보화 교육실적 】

구 분	정보화 인력 (명)	예산액 (백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교육 참석자 인원 (명)	교육 운영 횟수 (회)	인력 1인당 교육 운영 횟수 (회)
서울특별시	1	4	-	-	0회
부산광역시	2	8	56	5	2.5회
대구광역시	1	12	27	1	1회
인천광역시	3	12	145	13	4.3회
광주광역시	1	4	201	29	29회
대전광역시	1	4	-	-	0회
세종특별자치시	1	4	30	1	1회
경기도	14	52	2,207	125	8.9회
강원특별자치도	18	72	871	40	2.2회
충청북도	12	64	1,266	51	4.3회
충청남도	16	64	2,940	189	11.8회
전북특별자치도	13	56	592	11	0.85회
전라남도	16	72	2,414	149	9.3회
경상북도	21	84	2,053	122	5.8회
경상남도	18	76	1,792	101	5.6회
제주특별자치도	1	20	77	40	40회

※ 상기 정보화인력 및 교육운영 횟수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합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교육실적이 전무하거나, 연간 1회 이하에 그치는 등 정보화 전문인력을 통한 지역 농업인들의 정보화 역량 제고라는 당초 사업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러한 교육 실적 부진 문제는 '23년도에도 유사하게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한 문제로 보이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고착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3년도 지역별 농업인 정보화 교육실적 】

구분(2023)	정보화 인력 (명)	예산액 (백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교육 참석자 인원 (명)	교육 운영 횟수 (회)	인력 1인당 교육 운영 횟수 (회)
서울특별시	1	4	-	-	0회
부산광역시	2	8	226	14	7회
대구광역시	2	8	43	2	1회
인천광역시	3	12	52	2	0.7회
광주광역시	1	4	283	32	32회
울산광역시	1	4	177	38	38회
대전광역시	1	4	-	-	0회
세종특별자치시	1	4	30	1	1회
경기도	14	56	2,963	150	10.7회
강원특별자치도	18	80	2,852	129	7.2회
충청북도	12	72	1,924	125	10.4회
충청남도	18	68	3,091	204	11.3회
전북특별자치도	15	64	3,038	236	15.7회
전라남도	19	80	2,451	259	13.6회
경상북도	25	100	5,207	285	11.4회
경상남도	18	84	1,709	96	5.3회
제주특별자치도	2	24	1,244	71	35.5회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및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보조금의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기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¹²⁾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전검토를 규정하고 있음.¹³⁾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24년 2월 22일에 1차로 보조금을 교부한 뒤, 불과 6일 후인 2월 28일에 보조금의 최종교부를 마치는 등 보조금이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이와 같이 농촌진흥청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1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13)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P 95)

(6) 보조금 교부 시 유의사항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 전 엄격한 사전검토 의무를 위반하는 등 미흡한 관리·감독을 지속함에 따라 지역 농업인들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부실하게 실시되었음.

□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26년도 동 사업 예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농촌진흥청은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관련 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 및 미흡한 관리·감독으로 인하여 사업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사업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촌진흥청은 정보화 교육실적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 수요를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교육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보화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동 사업에 정량적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사업의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현장맞춤형 발농업 기계 고도화 사업: 예산 증액에 걸맞은 성과 제고 필요

- 농촌진흥청은 '26년도 동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노동 투입 비중은 높으나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동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를 '연구개발 기술이전 건수'로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동 '기술이전 건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등 예산 증액에 걸맞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현장맞춤형발농업기계고도화(R&D) 사업은 발농업기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고효율 농작업을 위한 복합작업형 농기계 개발과 발농업기계의 다품목 이용을 위한 범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9억 6,300만원(179.3%) 증액된 124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음¹⁴⁾.

【 2026년도 현장맞춤형 발농업기계 고도화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현장맞춤형 발농업기계 고도화(R&D)	1,700	4,440	3,970	12,403	7,963	179.3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14)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현장맞춤형발농업기계고도화(R&D) (1136-344)

나) 검토 의견

□ 벼농사는 경운·정지부터 이앙·방제·수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계화가 정착되어 99%의 높은 기계화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밭농업의 기계화율은 현재 67% 수준에 불과함.

이러한 낮은 밭농업 기계화율은 농촌의 고령화¹⁵⁾에 따른 인력난과 생산비 상승 등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는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정책과제로 보임.

또한, 밭농업은 재배작물의 품목이 많고, 재배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에 의한 재배작물 변경이 잦아 벼 농사 대비 단일 농기계 수요가 적고, 기계 사용일수가 짧아 현장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음.

이에 동 사업은 밭농업의 이러한 특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작물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복합작업형¹⁶⁾·다품목 범용 밭농업기계¹⁷⁾ 등 현장맞춤형 밭농업기계 개발을 통하여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15)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2년 49.8% → '23년 52.6% → '24년 55.8%

16) 연속되는 농작업을 하나의 기계로 수행하여 농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밭농업기계

17) 기존 기계의 일부 부품을 개선·교체하여 특성이 유사한 여러 품목의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밭농업기계

동 사업 예산의 '26년 정부안은 '25년 예산 44억 4,000만원 대비 79억 6,300만원 증액된 124억 300만원이 편성¹⁸⁾되었는데,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의 정책적 중요성 및 농가현장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 예산의 증액 필요성은 인정됨.

【 현장맞춤형밭농업기계고도화 사업 증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연구과제명	'25년 예산	'26년 정부안	증감액	비고
1	다조식 범용 엽채류 정식기 개발	500	-	△500	'25년 종료과제
2	현장맞춤형 마늘, 양파 수집 기계 범용화 기술 개발	600	-	△600	'25년 종료과제
3	자주식 배추 자동 복합수집기 개발	600	-	△600	'25년 종료과제
4	차속 자동 제어 소형 자주식 콩 수확기계 개발	685	900	215	회계연도 일치 증액
5	자주식 고구마 복합수확기 개발	460	600	140	회계연도 일치 증액
6	고성능·고효율 무·콩 균일 깊이 파종기 개발	460	600	140	회계연도 일치 증액
7	밭작물 정식기 범용 주행 플랫폼 개발	575	833	258	회계연도 일치 증액
8	두둑추종형 비료살포 동시 파종기계 고도화	560	720	160	회계연도 일치 증액
9	양파 정식 기계화 기술 개발	-	1,200	1,200	'26년 신규과제
10	양파 기계수확 연계 차압통풍식 예건·저장시스템 개발	-	700	700	'26년 신규과제
11	고구마 정식기 복합·고성능화 연구	-	1,000	1,000	'26년 신규과제
12	자주식 무 복합 수확기 개발	-	1,200	1,200	'26년 신규과제
13	인발·자주형 대파 수확기 개발	-	1,000	1,000	'26년 신규과제
14	인삼 복합 파종기 개발	-	950	950	'26년 신규과제
15	자주식 밭작물 터널설치기 개발 및 범용화 연구	-	800	800	'26년 신규과제
16	과수용 비산저감 약액 순환형 방제기 개발	-	900	900	'26년 신규과제
17	현장중심 배추 수확·수집 기계화 종합실증	-	500	500	'26년 신규과제
18	현장중심 배추 정식 기계화 종합실증	-	500	500	'26년 신규과제
총 계		4,440	12,403	7,963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18) '25년 종료하는 3개 과제 17억원 순감, '25년 신규 수행중인 5개 과제의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9억 1,300만원 증액 및 '26년도 신규 10개 과제 87억 5,000만원 증액 반영

□ 다만, 농촌진흥청은 '26년도 동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노동집약적인 밭작업 분야의 기계화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 노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파종·정식 및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각각 18.2%, 42.9%로 매우 저조하며, 특히, 배추·고추의 파종·정식 및 수확 기계화율은 0%에 머물러 있어 전적으로 수작업에 의존함에 따라, 농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5년간('20~'24) 밭농업기계화율 현황 】

연도	작업공정별 기계화율(%)					
	경운정지	파종·정식	비닐피복	방제	수확	평균
'20	99.6	12.2	73.0	93.2	31.6	61.9
'22	99.8	12.6	76.9	94.8	32.4	63.3
'24	100	18.2	77.7	96.2	42.9	67.0

* 기계화율은 2년 주기로 짝수해에 조사하고 있음

* 작물별 재배 면적을 고려한 가중 평균값임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2024년도 작물별·작업공정별 밭농업기계화율 현황 】

작 물	작업공정별 기계화율(%)					
	경운정지	파종·정식	비닐피복	방제	수확	평균
무	100	8.3	93.1	99.0	5.7	61.2
배추	100	0.0	84.4	96.5	0.0	56.2
마늘	99.9	17.6	57.0	96.2	59.7	66.1
양파	100	22.7	91.2	99.1	31.4	68.9
고추	99.9	0.3	55.2	89.1	0.0	48.9
고구마	100	2.6	89.2	98.0	79.6	73.9
감자	99.9	6.8	91.4	98.2	84.7	76.2
콩	99.9	42.3	76.4	96.3	62.6	75.5

* 통계명 : 농업기계 이용실태 조사(국가승인통계 143004호),

* 조사주기 및 방법 : 격년(짝수 해), 현지면접조사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따라서, 동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계화 기술 개발을 통한 ‘노동력 절감’에 있는 만큼, 노동 투입 비중은 높으나 기계화율이 낮은 작업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동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시제품 제작 건수’인데, 시제품 제작에만 그치고, 해당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인 ① 산업체 상용화(제품화), ② 해당 제품 판매 및 현장

보급으로 이어지지 않아 궁극적인 목표인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는 요원해질 우려가 있음.

또한, 기술 이전은 ‘시제품 제작 기반’의 기술 이전 외에 ‘특허 기반’의 기술 이전도 있으므로, ‘시제품 제작 건수’ 대비 ‘기술 이전 건수’가 동 사업의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산업체 상용화’ 및 ‘현장 보급’ 등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이전 건수’를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함으로써 동 사업 목적인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밭농업기계 개발 및 보급·확산 프로세스 】

기술개발→시제품 제작→ <u>기술이전</u> →	산업체상용화(제품화)→제품 판매 및 현장보급→	밭농업기계화율 반영
R&D 사업 영역(농진청)	실증 및 보급·정책사업 영역(민간, 농식품부)	최 종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셋째, 연구개발 ‘기술이전 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동 사업을 통해 총 2건의 기술이전, 기계 대수 기준 31대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반면, 타 세부사업인 ‘노지디지털 농업기술 단기고도화 사업’에서는 총 15건 및 545대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졌음.

【 밭농업 기계화 관련 연구과제 기술이전 건수 등 】

구분	사업명	개발기종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기계 대수
밭농업 기계화 관련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기관고유)	1	1	55
	노지디지털농업기술단기고도화(공동연구)	3	15	545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공동연구)	1	3	30
	기술사업화지원사업(수탁과제)	1	1	20
	현장맞춤형 밭농업기계 고도화	0	2	31
	합 계	6	22	681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25. 6. 30. 기준)

동 사업목적이 ‘밭농업기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맞춤형 밭농업기계화 기술 고도화’ 임에도 불구하고, ‘노지디지털 농업기술 단기고도화 사업’ 대비 기술이전 건수는 13.3%, 기계 대수 기준으로는 5.7%에 그치는 등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이전 기계 대수 모두 미흡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또한, 기술이전을 완료한 2건의 계약의 기술료 또한 438만원¹⁹⁾에

19) ① 뿌리작물 수확기용 수납장치('24년 기술이전, 기술료 432만원)

② 배추 수확기의 굴취장치('24년 기술이전, 기술료 6만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기술료 수입실적도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동 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의 ‘기술이전 건수’를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성 및 현장 활용도가 낮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해 보임.

넷째,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와 관련한 일선 농가 현장과의 소통의 확대가 필요함.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현장 실증과 농가 교육,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보급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 및 기술 실증회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을 제도화하는 등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다섯째, 밭농업 기계화 관련 R&D 정책의 목표를 단순한 보급률 중심의 ‘양적 확대’를 넘어, 농가 현장에서의 실용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질적 제고’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기존의 연구실 중심의 하향식(Top-down) 개발에서 벗어나, 농가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농업인, 산업체,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현장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야 할 것임.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개 요

- '26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7억원으로 '25년도(11억원) 대비 33.3%(4억원) 감소하였음.

【 2026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118	746	△372	△33.3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4	14	△20	△58.8
○ 기타경상이전수입	1,084	732	△352	△32.5

※ 자료 : 농촌진흥청 제출

- '26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85억원으로 '25년도(68억원) 대비 23.3%(16억원)가 증가하였음.

세부 증감내역을 보면, 농작업재해예방(보조) 사업이 '25년(30억원) 대비 67.9%(21억원) 증액 되었고, 고객현장지원 사업은 '25년(13억원) 대비 11.4%(1억원) 증액된 반면,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은 '25년(19억원)과 동일한 규모이고, 농업기술실용화기술R&D지원(R&D) 사업은 '25년 종료 예정임.

【 2026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6,849	8,446	1,597	23.3
<구조개선사업계정>	6,849	8,446	1,597	23.3
○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R&D)	600	-	△600	△100.0
○ 농작업재해예방(보조)	3,020	5,070	2,050	67.9
○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1,940	1,940	-	-
○ 고객현장지원	1,289	1,436	147	11.4

※ 자료 : 농촌진흥청 제출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농작업재해예방(보조) (2232-300): 농기계 사고예방 관련 예산 편성 검토 필요

- 농기계 교통사고 시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 대비 약 9.5배나 높은 측면과 농작업 여건상 사고 이후 병원 이송까지 일반 사고 대비 지연될 소지가 높은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기계 주행 안내 표지판 및 사고감지알림 단말기 지원·보급 사업을 동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작업재해예방(보조) 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부상·질병·장애·사망)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농작업 환경 위험점검·개선, 현장밀착 안전관리, 안전정보·문화 확산 등 예방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5,000만원(67.9%) 증액된 5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²⁰⁾.

【 2026년도 농작업재해예방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 기준)		'26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농작업재해예방(보조)	2,505	3,020	2,906	5,070	2,050	67.9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20)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작업재해예방(보조) (2232-300)

나) 검토의견

□ 최근 도로 주행 농업기계 사용이 늘고, 도농복합지역의 확대로 주행속도가 느린 농업기계와 일반차량의 추돌이나 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²¹⁾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농기계 교통사고는 연평균 672건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는 연평균 88명으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의 9.5배에 이르고 있음.

【 최근 5년(2020년~2024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 균
사고(건)	제1당사자	367	364	330	290	277	326
	제2당사자	415	367	319	338	293	346
	합 계	782	731	649	628	570	672
사망(명)	제1당사자	49	62	58	48	33	50
	제2당사자	43	37	31	40	39	38
	합 계	92	99	89	88	72	88
부상(명)	제1당사자	417	394	366	303	301	356
	제2당사자	524	475	386	401	360	429
	합 계	941	869	752	704	661	785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 균
농업기계 치사율*(%) (사망자/총건수)	11.8 (92/782)	13.5 (99/731)	13.7 (89/649)	14.0 (88/628)	12.6 (72/570)	13.1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사망자/총건수)	1.5 (3,081/ 209,654)	1.4 (2,916/ 203,130)	1.4 (2,735/ 196,836)	1.3 (2,551/ 198,296)	1.3 (2,521/ 196,349)	1.4
치사율 비교	7.9배	9.6배	9.8배	10.9배	9.8배	9.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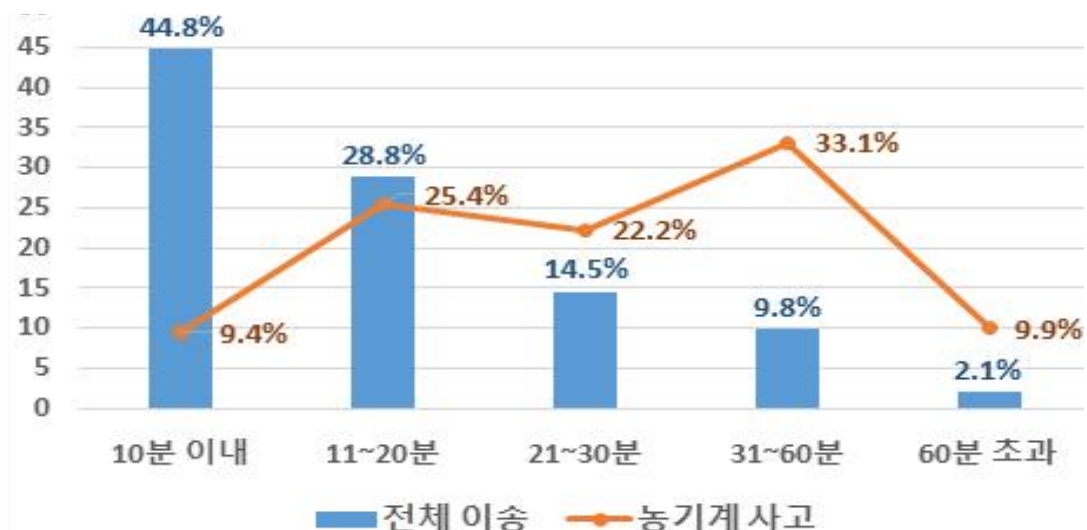
※ 자료 : 교통사고통계(경찰청),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도로교통공단)

21) 시야 확보 어려운 곳(곡선·언덕, 도로주변 나무 등) 많고, 일반차량이 주행 중인 농기계를 추돌하거나, 갑작스레 도로로 진입하는 농기계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 발생

또한, 농기계 전복 등 단독사고의 경우 소규모 농작업의 특성상 나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119 신고 및 구조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소가 일반적으로 병원시설과 거리가 있어 병원까지 도착 소요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43%로, 전체 이송(11.9%) 대비 약 3.6배나 높은 실정임.

【 농기계사고 구급차량 이송 소요시간 】



※ 자료: 소방청 보도자료[2023.10.17.(화)]

이처럼 농기계 사고의 높은 치사율과 사고 대응에 불리한 농작업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농기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촌지역 도로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전방 또는 주변(300m 이내) 농업기계 접근 정보(농업기계 종류, 접근 거리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감속 및 주의 운전을 유도하는 ① 사물인터넷(IoT²²⁾) 활용 농기계 주행 안내 표지판과,

주행 중인 농기계(트랙터, 경운기)가 전도·전복 사고 발생 시에 사고를 감지²³⁾하여 실시간 사고정보(사고자, 사고 위치 등)를 제3자(보호자) 및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여 신속한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② 전도·전복 사고 감지 및 구조신호 전송 장치(사고 감지알림 단말기)를 개발하였음²⁴⁾.

【 사물인터넷(IoT) 활용 농기계 주행 안내 표지판 설치 사진 】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22)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이라는 뜻으로, 일상생활 속 다양한 물건(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함.

23) 농기계가 일정 각도 이상 기울어지면 단말기의 감지센서 경보, GPS 송신으로 긴급호출

24) (연구개발) 센서기술 활용 ICT 기반 안전재해 예방 기초기술 연구('16~18), 효과검증('19)

* 특허출원 : 저속주행 차량의 주행알림 시스템 및 방법(제10-2017-0143043호)

* 특허출원 : 농업기계 사고 알림 장치 및 방법(제10-2021-0027891호)

【 사고감지알림 단말기 작동 방식 】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또한, 농촌진흥청은 이와 같은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농기계 사고예방 시범사업(2021~2023)을 추진하여 일반차량 평균 주행 속도 감속 및 농업기계운전자 교통안전 체감도 증가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농기계 사고예방 시범사업(2021~2023) 추진결과 】

- 사업명 :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알림 기술시범
- 시범요인 : 시작품 개발 및 특허출원('18),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19)
 - * 특허등록(10-2026761): 저속주행 차량의 주행 알림 시스템 및 방법(농진청)
- 사업규모('21~'23) : 14개소, 840백만원(개소당 60백만원, 국비·지방비 50%)
 - * 보급(14개소) : 안성(2), 제천(2), 진안(2), 남원 장흥, 고흥 성주, 하동 양산 인천계양/중구
- 지원내역 : 사고감지 알람 시스템 610대, 도로 안내표지판 33개
 - * 개소당 교통표지판 2~3대, 농기계 부착 단말기 40~50대
- 사업효과
 - 차량 주행속도 최소 11%↓, 관행대비 교통안전 체감도 42~150%↑
 - 사업 참여농업인의 시범사업 만족도 : 94.7%



KBS 보도('24. 3. 6.)



MBC 보도 ('24. 3. 8.)



MBN 보도('24. 3. 7.)

<그림 1>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관련 언론 보도

【 농기계 사고예방 시범사업(2021~2023) 성과 】

○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설치 전후 일반차량 주행속도 측정

- 조사 일시: 2021.9.14.~12.17
- 측정 장소: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일대(3개 마을, 신기술보급사업 지역)
 - * 총 2,454대 차량 속도 측정 데이터(측정: 부쉬넬 벨로시티 스피드건: BN 101911)
- 측정 결과: **개발 기술 적용 후 일반차량 주행속도 최소 11% ↓감속 효과**
 - * 속도 감속률: A 지역 13.7% ↓, B 지역 11.8% ↓, C 지역 16.9% ↓
 - * 규정 속도 시속 60km/h 구간에서 과속차량 25% ↓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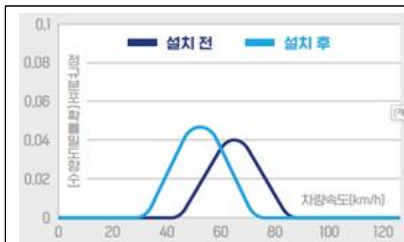
설치지역(장흥, 3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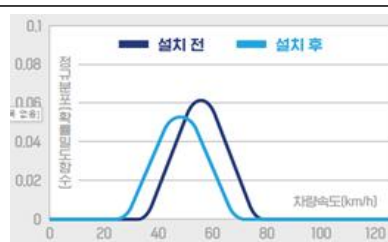
IoT 주행 안내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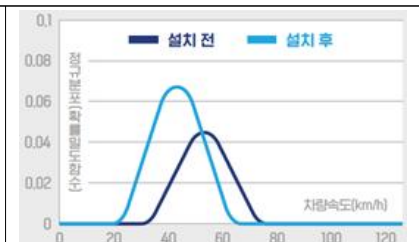
일반차량 주행속도 측정



A 지역 (편도 2차) 직선구간 교차로	설치 전	설치 후
	64.0km/h	55.3km/h
감속률	13.7%	



B 지역 (편도 1차) 곡선구간	설치 전	설치 후
	56.2km/h	49.5km/h
감속률	11.8%	



C 지역 (편도 1차) 곡선구간 교차로	설치 전	설치 후
	54.6km/h	45.4km/h
감속률	16.9%	

○ 시범사업 지역 농업인 대상 교통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

- 농업기계 교통안전 체감도 증가율: 42~150% ↑ 증감
- * 총 148명 대상, 대면 설문지 조사

설치지역	기존(관행)(점수)	시범 설치 후(점수)	증가율(%)
전남 장흥	3.0	5.0	66 ↑
인천 계양	3.5	5.0	42 ↑
전북 남원	2.0	5.0	150 ↑
(5점 척도) 1점: 전혀 체감하지 못함 / 5점: 매우 많이 체감함			

* 2021년 신기술보급사업 평가 결과, 농촌진흥청

□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의 기술 확산은 미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농작업 안전재해(부상·질병·장애·사망)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인 동 사업 예산안에 농기계 사고예방 장치 지원 등 관련 사업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① 농기계 교통사고 시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 대비 약 9.5배나 높은 측면과, ② 농촌의 고령화²⁵⁾로 인하여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농기계를 운전하는 비율이 높은 점, ③ 농작업 여건상 사고 이후 병원 이송까지 일반 사고 대비 지연될 소지가 있는 점, ④ 농기계 사고예방 시범사업 결과 유의미한 성과²⁶⁾가 도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농기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기계 주행 안내 표지판 및 사고감지알림 단말기 지원·보급 사업을 동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안 심사 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25)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2년 49.8% → '23년 52.6% → '24년 55.8%

26)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설치 후 일반차량 평균 주행속도 감속 및 시범사업 지역 농업인의 교통안전 체감도 증가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 요

□ '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17억원으로 '25년도(15억원) 대비 14.6%(2억원) 증가하였음.

주된 증액 사유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이 17억원으로 '25년(15억원) 대비 12.7%(2억원) 증가함에 따른 것임.

【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516	1,737	221	14.6
<지역자율계정>	1,115	1,144	29	2.6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	4	-	-
○ 기타경상이전수입	1,111	1,140	29	2.6
<지역지원계정>	346	471	125	36.1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	7	-	-
○ 기타경상이전수입	339	464	125	36.9
<제주특별자치도계정>	53	106	53	100.0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	3	2	200.0
○ 기타경상이전수입	52	103	51	98.1
<세종특별자치시계정>	2	16	14	700.0
○ 기타경상이전수입	2	16	14	700.0

※ 자료 : 농촌진흥청 제출

□ '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288억원으로 '25년도(1,138억원) 대비 13.2%(150억원) 증가하였음.

계정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자율계정은 694억원으로 '25년(599억원) 대비 15.9%(95억원) 증가하였고, 지역지원계정은 553억원으로 '25년(510억원) 대비 8.3%(43억원) 증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39억원으로 '25년(24억원) 대비 62.1%(15억원) 증가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은 1억원으로 '25년(4억원) 대비 64.5%(3억원) 감소하였음.

【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5년 예산(A)	'26년 예산안(B)	증감	
			(B-A)	%
총 계	113,812	128,804	14,992	13.2
<지역자율계정>	59,948	69,463	9,515	15.9
○ 지역특화작목연구기반고도화(지역자율)	1,448	5,128	3,680	254.1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지역자율)	58,500	60,732	2,232	3.8
○ 농업 전문인력양성(지역자율)	-	3,603	3,603	순증
<지역지원계정>	51,080	55,334	4,254	8.3
○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지역지원)	6,316	9,624	3,308	52.4
○ 신기술보급사업(지역지원)	38,907	38,853	△54	△0.1
○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지역지원)	3,672	2,297	△1,375	△37.4
○ 농촌자원소득화지원(지역지원)	2,185	1,685	△500	△22.9
○ 농산업교육훈련지원(지역지원)	-	2,875	2,875	순증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384	3,865	1,481	62.1
○ 지역특화작목연구기반고도화(제주, 지역자율)	280	600	320	114.3
○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제주, 지역지원)	204	590	386	189.2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제주, 지역자율)	1,900	2,600	700	36.8
○ 농업 전문인력양성(제주)	-	75	75	순증
<세종특별자치시계정>	400	142	△258	△64.5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세종, 지역자율)	400	125	△275	△68.8
○ 농업 전문인력양성(세종, 지역자율)	-	17	17	순증

※ 자료 : 농촌진흥청 제출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농촌자원소득화지원: 치유농업사 제도의 미흡한 운영 개선 필요

- 농촌진흥청이 수립한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농촌진흥기관 의무배치 및 신규고용을 유도함으로써 '26년 기준 총 400명의 신규 치유농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 배치 인원 23명 외에 치유농장 등 별도의 일자리 창출은 전무하여 당초 취지와는 달리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은 동 제도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제고할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치유농업사의 자격 및 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촌자원소득화지원 사업은 치유자원과 농경문화를 관리·활용하는 R&D 기술을 적용한 소득화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원(22.9%) 감액된 16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²⁷⁾.

【 2026년도 농촌자원소득화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농촌자원소득화지원 (보조, 지역지원)	2,960	2,185	2,166	1,685	△500	△22.9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27) 회계(기금)-세부사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농촌자원소득화지원(보조, 지역지원) (2234-305)

나) 검토의견

- 「치유농업 연구개발·육성을 위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라 한다) 제정('20. 3.) 및 시행('21. 3.)으로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의 ‘치유농업’이 도입되었음.

이는 농업을 단순한 식량 생산의 수단을 넘어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서, 치유농업의 도입 배경에는 현대인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 증가 등 정신건강 문제의 대두,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사회 소멸 위기 등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임.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치유농업을 발전 및 확대하기 위하여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2~2026)’과 같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제1차(2022~202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상 목표 】

비전	건강한 국민과 활력있는 농업·농촌
-----------	---------------------------

목 표

◆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확산

-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효과검증('26년까지) : 19종
-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수('26년까지) : 600천명

◆ 농촌 활력화를 위한 치유농업 사업모델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다각화된 치유농업 사업 모델 육성('26년까지): 20종
- 치유농업사 일자리 창출('26년까지) : 400명

정책방향	전략과제
① 연구 개발	① 자원발굴 및 특성 분석 ②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③ 프로그램 효과검증 및 원리 구명 연구 확대 ④ 신산업 창출 및 사업 모델 개발
② 성과 확산	① 거점기관 및 확산체계 구축 ② 개발기술 보급 ③ 전문인력 육성
③ 기반 구축	①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망 구축 ② 거버넌스 구축 ③ 법·제도 기반 연구
④ 사업화 촉진	① 치유농업 품질 관리 체계화 ② 창업지원 및 개발 기술의 현장 실용화 ③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국제협력 교류 활성화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또한,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치유농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이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일자리 마련 등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치유농업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치유농업사의 응시자격 및 취득 방식은 아래 표와 같음.

【 치유농업사 응시 자격 】

자격등급	응시자격
1급 치유농업사 (26년 시행 예정)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과 관련된 업무(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말하며, 이하 “치유농업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또는 보건·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산업기사, 보건·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복지·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능사 또는 사회복지·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치유농업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
2급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치유농업사 시험 형식 및 과목 】

자격등급	시험방식	시험과목
1급 치유농업사 (‘26년 시행 예정)	1) 제1차시험	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나)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다)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라)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2) 제2차시험	치유농업의 관리 실무
2급 치유농업사	1) 제1차시험	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나)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다)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2) 제2차시험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그런데, '21년 치유농업사 제도 도입 이후 '25년 10월 현재까지 647명이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치유농업 관련 분야에 취업한 인원은 23명으로, 전체 자격 취득자의 3.5%에 그치고 있음.

【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현황 】

(단위: 명)

'21	'22	'23	'24	'25.10.	취득 누계
93	160	138	256	시행 예정	647

【 치유농업사 취업현황(2025. 10. 기준) 】

□ 2급 치유농업사 취업현황: 23명

순번	시도	성명	근무기관(소속)	근무 형태	취업 기간
1	충남	안*현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민간전문가	'21년 12월 ~ 현재
2	경북	장*란	의성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	'22년 3월 ~ 현재
3	제주	김*희	제주도농업기술원	민간전문가	'23.1.1. ~ 12.31.
4	경기	이*윤	경기도농업기술원	일반임기제 공무원	'23년 10월 ~ 현재
5	강원	신*경	양양군(새활용센터)	민간전문가	'24.1.1. ~ 현재
6	전북	심*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문연구원	'24.1.1. ~ 현재
7	전북	정*화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민간전문가	'24.1.1. ~ 현재
8	충남	정*영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민간전문가	'24.5.1. ~ '25.1.3.
9	서울	백*정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한시적임기제공무원	'24년 10월 ~ 현재
10	전남	김*희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	'24.11.4. ~ 현재
11	충북	심*림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4.12.16. ~ 현재
12	경남	정*해	누리봄이야기 치유농장	단기계약 근로자	'25.1.1. ~ 현재
13	경남	이*자	물사랑치유농장	단기계약 근로자	'25.1.1. ~ 현재
14	경남	안*엽	안단테치유농장	단기계약 근로자	'25.1.1. ~ 현재
15	경남	이*희	슬로에팜	단기계약 근로자	'25.1.1. ~ 현재
16	서울	이*희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25.3.4. ~ 현재
17	인천	박*숙	인천시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25.3.4. ~ 현재
18	전남	홍*영	전남도립대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25.3.4. ~ 현재
19	경북	서*해	라운헤움치유농장	기간제근로자	'25.3.4. ~ 현재
20	충남	백*현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	'25년 4월 ~ 현재
21	충남	박*모	단국대(천안) 평생교육원	기간제근로자	'25년 4월 ~ 현재
22	경기	정*자	경기도 시흥시	치유타발 보조강사	'25년 4월 ~ 현재
23	전북	김*선	기전대학교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25년 5월 ~ 현재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또한, 농촌진흥청이 수립한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2~2026)’에 따르면, 농촌진흥기관 의무배치 및 신규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26년 기준 총 400명의 신규 치유

농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치유농업법 시행령」 제7조²⁸⁾에 따른 의무 배치 인원 23명 외에 별도의 고용 일자리 창출은 전무한 실정임.

【 ‘종합계획’ 내 치유농업사 일자리 목표 및 달성률 】

[단위: 년, 명, %]

구분	의무 배치	고용	합계
목표 * '26년 까지 누계	165명	235명	400명
성과 * '25년 상반기 기준	23명	-	23명
달성률	13.5%	0%	5.75%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이와 같이 안정적인 고용시장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제시하고 있는 주된 경력 개발경로는 치유농장 등에 대한 ‘창업’²⁹⁾인 것으로 보이나,

모든 자격 취득자에게 창업가로서의 역량과 위험 감수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제도운영으로 판단됨.

28)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치유농업의 배치) ① 농촌진흥청장은 그 소속기관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29)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장 창업을 위한 시설 설치 자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 사업량: 10개소
- 사업비: 600백만원[개소당 60백만원(국비, 지방비 각 40%, 자부담 20)]
- 시범요인: 사회서비스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적용

특히, ‘치유농업’이라는 신생 시장에서, 갓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고 사업모델을 구축하며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자격 취득자 개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보이고,

이는 치유농업사 제도가 당초 제도 목적인 치유농업 관련 ‘전문가 양성’이 아닌, 치유농업 관련 ‘소상공인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26년부터는 ‘2급 치유농업사’의 상위 단계인 ‘1급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까지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기본 단계인 2급 치유농업사조차 안정적인 고용 시장을 찾지 못하고 극히 저조한 취업률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상위 자격 인력의 배출이 시작될 경우 자격제도 전반의 신뢰성 하락은 물론,

전문 인력의 경력 경로 부재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는 등 2급 치유농업사 및 1급 치유농업사 모두에게 과도한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치유농업사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관련 계통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미흡하게 운영되는 것은 제도 설계 단계부터 농촌진흥청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첫째,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사에 대한 사업 설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농촌진흥청이 시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치유농업사의 공급 확대에만 치중함에 따라, 실제 시장 수요는 낮은 반면, 치유농업사의 공급은 계속되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치유농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치유농업 관련 서비스·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³⁰⁾하고 있으나,

민간 영역의 농장·기관 및 치유농업시설 등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역은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격증 취득이 실제 취업으

30)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치유농업의 배치) ① 농촌진흥청장은 그 소속기관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자격증 소지자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치유농업 프로그램 제공, 강의, 컨설팅, 심사위원 활동 등 그 역할이 제한적인 실정임.

즉,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사 제도를 공급 측면(양성기관 지정, 자격자 배출)에 치중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였으나, 고용 인센티브 등 민간의 자발적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병행되는 정책은 전무하였고, 이로 인하여 치유농업사 도입 당시 취지와는 다르게 관련 계통의 일자리 창출로 전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둘째, 획일적인 자격 취득 과정에 따른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있음.

현재 시행중인 2급 치유농업사의 양성과정은 이론 94시간과 실습 48시간을 포함한 총 142시간으로, 교육 내용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및 선택과목³¹⁾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교육과정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치유농업이 치매 노인, 발달장애인,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서비스인 측면을 고려할 때,

31) ① 농업분야

원예학, 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보호학, 토양학, 축산학개론, 동물생리학, 동물영양학, 동물질병학, 동물관리학, 곤충학, 농기계학, 농작업(農作業) 안전관리, 반려동물학

② 비농업분야

보건학개론, 보완대체의학, 예방의학, 교육학개론, 교수설계론, 심리학개론, 사회복지학, 직업 및 진로상담

이러한 대상자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기술과 위기 대처 능력, 관련 농작업 및 시설 관리 능력 등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분야별 전문성을 단 48시간의 실습으로 습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행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교육과정만으로는 자칫 ‘수박 겉핥기’식 교육에 그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부족한 전문성은 나아가 치유농업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내용 】

교육분야		교육과목	교육시간		
			계	이론	실습
1급 치유 농업사	가. 치유농업과 치유 농업서비스의 이해	1)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건강·재활	12	6	6
		2) 치유농업서비스 대상자의 중점관리	12	6	6
	나.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1) 치유농업자원의 관리	8	4	4
		2)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8	4	4
	다.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1) 치유농업서비스 사업의 기획·관리	15	6	9
		2) 치유농업서비스 종사인력의 역량 강화	15	6	9
	라.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심화	54	18	36
소 계			124	50	74
2급 치유 농업사	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1) 치유농업개론	8	8	
		2) 치유농업서비스의 대상자 진단	18	18	
	나.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1) 치유농업자원의 관리	24	12	12
		2)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18	10	8
	다.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1)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24	12	12
		2) 치유농업 서비스의 실행	16	8	8
		3) 치유농업 서비스의 평가	16	8	8
	라. 선택과목	1) 농업분야 원예학, 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보호학, 토양학, 축산학개론, 동물생리학, 동물영 양학, 동물질병학, 동물관리학, 곤충학, 농 기계학, 농작업(農作業) 안전관리, 반려 동물학 2) 비농업분야 보건학개론, 보완대체의학, 예방의학, 교육학개론, 교수설계론, 심리학개론, 사회복지학, 직업 및 진로상담	18	18	
	소 계		142	94	48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사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첫째, 치유농업사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주도’에서 ‘수요 창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와 같이 단순히 자격증 소지자 및 양성기관을 양산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 성공적으로 시장을 안착시킨 산림청의 ‘숲해설가’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시장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둘째,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및 교육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치매 노인, 발달장애인,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기술과 위기 대처 능력, 관련 농작업 및 시설 관리 능력 등 치유농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개선 및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자격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전문가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숲해설가’ 제도처럼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이러한 개선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당초 치유농업사 도입 취지와 다르게 여전히 관련 계통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동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에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지역자율) : 이월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 점검 및 실행행위를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농촌진흥청은 '26년 동 사업 추진 시 그동안의 미흡한 관리·감독에 따라 실행행위가 부진했던 경과와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행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향후에도 실행행위 부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지역자율) 사업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개발 촉진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 3,200만원(3.8%) 증액된 607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³²⁾.

【 2026년도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지역자율)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지원(보조, 지역자율)	67,585	58,500	45,515	60,732	2,232	3.8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32) 회계(기금)-세부사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지역자율) (2233-300)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과학영농 시설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을 지역 농업 기술 보급의 중추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활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025년에는 8개 도농업기술원, 2개 특광역시 농업기술원, 60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지도기반시설 93개소를 지원하였음.

【 최근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

구 분	지원 내역
2020	- 농촌지도시설 106개소 지원, 농촌지도장비 314종 지원
2021	- 농촌지도시설 118개소 지원, 농촌지도장비 413종 지원
2022	- 농촌지도시설 112개소 지원, 농촌지도장비 290종 지원
2023	- 농촌지도시설 109개소 지원
2024	- 농촌지도시설 102개소 지원
2025	- 농촌지도시설 93개소 지원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지원내용 】

구분	지원 내용
농촌지도기반 시설	과학영농종합시설, 교육시설, 종합검정실, 실증포장, 미생물배양시설, 실습체험시설 등
농촌지도기반 장비 ※ '23년부터 지방이양	교육용차량, 교육용장비, 종합검정장비, 병해충진단장비, 가축질병장비, 조직배양장비, 미생물배양장비, 농산물가공장비, 냄새저감장비 등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435억 6,100만 원의 이월액과 12억 4,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만성적인 집행 부진을 보이고 있음.

특히, 동사업의 집행 부진 정도가 단순 반복을 넘어 고착화·심화됨에 따라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2022 ~ 2024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2	63,342	63,342	65,893	65,893	22,920	88,813	54,658	32,755	1,400	61.5
2023	53,696	53,696	53,696	53,696	32,755	86,451	44,313	40,689	1,449	51.3
2024	67,585	67,585	67,585	67,585	40,689	108,274	50,161	57,239	874	46.3
평 균								43,561	1,241	52.6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또한, 2025년의 경우에도 10월 기준 실집행률이 40.2%에 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2025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자율) 실적행 현황 】

피보조기관 실적행내역															
지역	국고 보조율	교부액(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D/C)
		소계	1차 (1.23)	2차 (2.21)	3차 (4.24)	4차 (5.22)	5차 (6.23)	6차 (7.29)	7차 (8.28)						
대구	50	-	-	-	-	-	-	-	-	805	805	380	-	-	47.2
광주	50	-	-	-	-	-	-	-	-	1,867	1,867	926	-	-	49.6
인천	50	1,375	130	420	55	-	770	-	-	-	1,375	1,035	-	-	75.3
대전	50	150	14	46	66	-	24	-	-	133	283	168	-	-	59.4
경기	50	2,424	280	906	118	216	614	140	150	3021	5,445	1,839	-	-	33.8
강원	50	2,450	280	920	120	219	521	240	150	2632	5,082	1,969	-	-	38.7
충북	50	3,595	410	1,326	174	416	799	230	240	2173	5,768	1,394	-	-	24.2
충남	50	6,644	730	2,470	320	554	1,690	430	450	6433	13,077	4,572	-	-	35
전북	50	5,202	-	2,506	251	455	1,300	340	350	5116	10,318	5,054	-	-	49
전남	50	10,319	1,180	3,810	499	910	2,600	620	700	15048	25,367	6,932	-	-	27.3
경북	50	8,885	1,010	3,288	430	760	2,297	500	600	7150	16,035	6,616	-	-	41.3
경남	50	7,711	866	2,808	367	670	1,900	500	600	12861	20,572	11,777	-	-	57.2
소 계		48,755	4,900	18,500	2,400	4,200	12,515	3,000	3,240	57,239	105,994	42,662	-	-	40.2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한편, 2024년 예산으로 수행한 사업의 경우 143건 중 52건 (36.7%)이 2025년으로 이월되었으나, 이 중 40건은 2025년 10월 현재 여전히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이 중 충남 서산, 전북 정읍, 경북 경산에서 수행중인 사업들은 2025년 10월 기준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경기 포천, 경북 포항, 경남 양산에서 실시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다음 연도로 재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임.

【 2024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예산의 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

시.도	시군	사업명	이월액(A)	집행액(B)	잔액(A-B)	집행률(%)
대구	군위	종합검정실 신축	805,305	380,054	425,251	47.2
광주	광주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구축	868,077	300,000	568,077	34.6
대전	대전	농촌지도기반조성	132,790	84,610	48,180	63.7
경기	파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확대 건립	906,736	857,776	48,960	94.6
	포천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 공사	2,114,645	19,247	2,095,398	0.9
강원	태백	과학영농시설 농업인학습관 신축	1,417,733	498,084	919,649	35.1
	홍천	농산업 창업교육관 신축	1,001,400	979,619	21,781	97.8
	정선	스마트농업 교육시설	122,143	122,093	50	100
충북	옥천	치유농업관 건립	310,452	298,324	12,128	96.1
	기술원	스마트 농업기계 실증장 조성	1,800,000	211,638	1,588,362	11.8
	진천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과수 온실 조성	62,435	60,179	2,256	96.4
충남	서산	농업인 협업공간 조성	470,364	-	470,364	-
	논산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건축	1,483,964	248,314	1,235,650	16.7
	논산	농업방송실 및 스마트교육장 조성	14,100	14,100	0	100
	청양	농업기계교육장 구축	487,670	100,000	387,670	20.5
	홍성	도시농업지원센터 시스템 구축	228,510	223,474	5,036	97.8
	보령	친환경축산관리실 신축	388,696	268,512	120,184	69.1
	금산	미래복합디지털농업교육관 조성	637,381	579,827	57,554	91
	서천	농업미생물 배양시스템 구축	335,425	334,473	952	99.7
전북	전주	농업인 교육장 및 실습시설 조성	308,335	308,335	0	100
	순창	친환경 자재 생산·보급시스템 구축	518,265	270,000	248,265	52.1
	정읍	정읍시 치유농업관	1,500,000	-	1,500,000	-
	임실	과학영농시설 구축	1,693,375	1,693,375	0	100
	임실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388,856	82,000	306,856	21.1
전남	도원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건립	3,390,000	426,000	2,964,000	12.6
	구례	친환경농업교육관 증축	750,000	276,719	473,281	36.9
	무안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2,900,000	322,428	2,577,572	11.1
	영광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설립	175,693	175,693	0	100
	진도	고체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구축	1,000,000	944,400	55,600	94.4
	담양	기후변화대응첨단자동화온실모델구축	9,765	9,765	0	100
	담양	24 농촌지도기반시설 현대화	62,438	62,438	0	100
	완도	고급 농업인 복합문화 체험센터	295,909	291,188	4,721	98.4
	신안	농업인 정보화 교육관 신축	205,337	205,037	300	99.9

시.도	시군	사업명	이월액(A)	집행액(B)	잔액 (A-B)	집행률 (%)
경북	포항	구룡포농업인상담소 신축	483,270	46,705	436,565	9.7
	경주	과학영농실증교육관 건립	2,444,980	2,444,980	0	100
	영주	농기계 안전교육장 신축	1,000,000	660,263	339,737	66
	문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별관)신축	800,000	800,000	0	100
	경산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건립	86,000	-	86,000	-
	영양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설치	200,000	50,000	150,000	25
	영덕	영덕농업테마파크조성	83,366	36,378	46,988	43.6
	울진	조직배양실 구축	348,483	274,884	73,599	78.9
	칠곡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 조성	1,216,102	492,766	723,336	40.5
	울릉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체험교육장 신설	40,255	29,900	10,355	74.3
경남	창원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3,827,873	3,142,697	685,176	82.1
	통영	과학영농시설 이전	1,800,000	248,929	1,551,071	13.8
	거제	농업개발원 시설 개선	8,054	8,054	0	100
	양산	농업인스마트교육관 건립	989,955	10,045	979,910	1
	창녕	마늘무병종구 증식보급센터 신축	75,957	75,957	0	100
	사천	과학영농시설 확대 조성	1,944,242	949,473	994,769	48.8
	함안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생균제 배양시설 건립	123,967	114,373	9,594	92.3
	합천	과학영농종합시설(농업기술센터) 신축	394,942	394,942	0	100
세종	세종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기반시설 및 환경 개선	263,895	210,217	53,678	79.7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동 사업의 이러한 연례적인 집행부진의 반복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은 '26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농촌진흥청은 그동안의 실집행률 부진에 대한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분기별 현장 점검을 포함한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의 이월 및 재이월을 방지하고 사업의 실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는 예산의 이월과 관련하여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고³³⁾,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국고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6년 동 사업 추진 시 '24년 교부된 예산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임.

셋째, 이러한 개선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실집행을 부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사업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